

군산살면 어청도 오가는 배 '반값'

연말까지 1인기준 왕복 여객비 2만3000원 해양수산부 선정 명품섬... 힐링명소 부상

군산시는 전북도내 최서단에 위치한 도시인 어청도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비 50%를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시범사업은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시범 지원할 계획으로 승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50%를 할인받아 1인기준 왕복 여객비 2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명품섬 BEST 10의 하나인 어청도는 해발고도 100미터 인공의 산지로 이루어져 산길이 울창하고 천혜의 어청도항 내에는 해안테코를 설치하여 섬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팔각정

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의 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가을 시즌 전국에 있는 강태공들의 출조(出釣)가 이어지는 선호도시로 손꼽히며 1박2일 여정의 트레킹 코스와 조류탐방 방문센터는 철새들의 이동경로로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탐조관광의 떠오르는 명소가 되고 있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어청도의 주민들은 불편한 해상교통과 생활여건을 감수하면서도 영토수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어청갑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어청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군산시는 어청도의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비 50%를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어청도 전경.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항구 주변 민박집들의 식사는 계절에 맞춰 우럭찜, 봉장어 구이 등

을 맛볼 수 있으며 가을철 여행객들의 민박은 어청도 어촌계장(이일권)의 안내를 받아 예약할 수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방송인 김병조 교수, 오늘 원광대서 특강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



문 최우수연기상 수상', '방송유공 국무총리표창', '저축유공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종갓집 방송으로 태어나 한학을 수학한 경험으로 20여년 동안

방송인 김병조 조선대 교수(사진)가 28일 저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최고정책관리과정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광주교와 중앙대를 졸업한 후 개그맨 등 방송인으로 활동한 김병조 교수는 메인 MC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살찌기 옵서예', '지구를 떠나지마라', '나가 놀아라', '바라와 함께 사라지마라', '제발 교양 있게 살아라', '먼저 인간이 되거라' '인간아, 인간아 왜 사니?' 등 술한 유행어를 만들어 이름을 떨쳤다.

특히 MBC 연기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 MBC 방송연기상 코미디부

대학에서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명심보감 연구를 수십 년간 수행한 김 교수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룩하는 '어머니'의 교육에서 현대인의 리더십 덕목을 찾아왔다"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으로 '모성리더십', '소통리더십', '공정리더십', '리액션 리더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내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변화에 변화를 더한 혁신' 주문

조선소 가동중단 등 현안 논의

군산시가 27일 문동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 읍면동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중요성과 및 미흡한 점에 대한 총괄평가 보고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소별 보고, 그리고 시정발전 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세부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당면현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총괄평가 보고에서는 올해 관광분야, 어린이행복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대책 마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정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도에 세계경기 침체 지속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유연하고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변화를 더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문 시장은 이를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69건이 포함된 주요사업 186건과 일반사업 347건 등 총 533건의 사업이 국소별로 발표됐으며,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다짐했다.

문 시장은 "지금까지 군산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고 지금의 위기는 분명, 또 다른 군산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하며 "희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모아 해쳐나가지"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행정력 집중

테스크포스팀 가동 본격화 총괄본부장에 김철모 부시장 노후청사 개발사업 공모키로



김철모 익산부시장

익산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올인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하여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청사는 1970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지난 2003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슬래브 처짐 현상 발생 등으로 시급히 보수·보강을 요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7년에 청사 1, 2층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향상되었으나, 4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내진설계 등이 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난에 취약한 상태다.

그간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시는 지난 2007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천문학적인 사업비 및 지역갈등 우려로 인해 유야무야 된 바가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청사 문제는 익산시 시민의 안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그러기에 더더욱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속하게 신청사 건립 T/F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신청사 건립 T/F팀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 총괄본부장으로, 안전행정국장 과 건설교통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청사건축 등을 담당하는 추진총괄팀, 청사지원팀, 기획지원팀, 연계사업 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정부 정책변화 등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처절함의 역사... 잊지마시다

군산시 체만식문학상에 한수산 작가 '군함도' 선정

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귀환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체만식문학상 유보선 심사위원장은 "한 작가의 '군함도'는 체만식의 문학정신을 가장 높은 미학적

경지에서 계승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제14회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산 작가는 1946년 강원도 출생으로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해 등단했으며, 제1회 오

늘의 작가상(1977), 제3회 녹원문학상(1984), 제36회 현대문학상(1991), 제20회 카톨릭문학상(2017)을 수상했다.

주요저서로는 3대의 가족사를 그린 장편소설 '유민'이 있으며, 그 밖에도 '육망의 거리', '백년의 약속', '까마귀', '군함도, 2' 등의 작품이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추석연휴 열흘간 의료공백

군산시 당직 의료기관 운영

군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열흘간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시에서는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 463-4000)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 472-

5129), 동군산병원(☎ 440-0516)과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병·의원 141, 치과 3, 한의원 44, 약국 122개소를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함께 지역별 지정된 날에 운영토록 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은 군산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도 문의하면 진료 등 응급의료정보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